

■ 논술·면접 대비 이렇게

# 나만의 체험살린 글쓰기 연습하라

2007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과 함께 28일부터 대학별로 본격적인 전형이 시작됐다. 수험생들은 이제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논술 및 면접·구술고사를 대비해야 한다. 광주·전남지역 대학의 경우 남부대·영산선학대만 논술고사를 실시하고, 전남대·조선대 등 대부분의 대학이 면접고사를 치른다. 서울 주요 대학은 논술과 면접을 함께 실시한다. 입시전문가들은 대학별로 조금씩 다른 논술의 유형들을 차분히 분석하면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논술고사=이번 정시 논술고사는 내년 4월 도입될 '통합형 논술고사'가 시행되기 전

새로운 형식의 논술문제 경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습을 해야 한다.

연세대는 최근 들어 가장 참신한 문제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불안·나이 들·웃음처럼 기존 논술시험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일상적인 주제들을 주로 출제했고, 시·회곡·동양 고전 같은 폭넓은 교양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제시문을 채택했다.

제시문 분석을 통해 요지를 파악하고 사회 현상과 접목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유기적으로 펼쳐는 연습을 해야 한다. 제시문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갖춰 두고 현상 나열 또는 양비론으로 빠지는 피상적인 글쓰기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28일 광주가톨릭대를 시작으로 2007학년도 대입 정시 전형이 본격 시작됐다. 수험생들은 이제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논술 및 면접·구술고사를 대비해야 한다. 사진은 지난 18일 광주일보와 광주 대성학원이 공동 마련한 대입설명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모습.

## 논술-기출문제 통한 준비 가장 효과적 면접-지망학과 관련된 개념 정리해야

마지막 논술고사라는 점에서 지난해와 비슷한 출제경향을 보일 것으로 점쳐진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찾기보다 지망대학의 기출문제를 통한 준비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새로운 지식을 쌓기보다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관점을 강조하는 글쓰기 훈련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대의 경우 고전 제시문을 통해 현재의 의미를 밝히도록 유도하는 문제가 논술고사의 기본적인 뼈대이다. 2006학년도 논술고사는 주어진 논제와 제시문을 통해 얼마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사고력을 갖췄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고전과 현실을 접목시키는 수험생 자신의 독서체험과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갖춘 때만 해결할 수 있다. 통합교과형으로 출제되는

고려대는 해마다 유사한 형태의 문제를 출제했다. 공통주제를 밝히고 제시문 간의 연관관계를 설명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야 한다. 이 유형은 단순한 요약문제보다 심도 있게 학생의 독해력과 논리력을 측정할 수 있어 계속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기출문제도 연습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올해는 출제경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올해 수시전형부터 언어와 수리가 결합된 통합교과형 논술로 유형을 바꿨기 때문이다.

서강대는 철학적이고 원론적인 주제를 주로 출제해 이를 현실 문제와 관련시켜 사고할 것을 요구한다. 또 독해력·논증력·창의력 등의 능력을 세분해 평가할 수 있도록 문제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했다. 짧은 글을 작성하는 연습을 많이 해 봐야 한다.

▲면접·구술 고사=최근 들어 면접 및 구

술고사의 경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논술의 구술화'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면접고사가 자기소개, 장래희망과 지원동기, 학업계획 같은 인성적 측면을 묻는 낮은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제시문을 주고 그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구술적 성격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

사전에 지망 대학과 학과에 대한 출제 지침·면접 진행 방식·기출문제 등을 꼼꼼히 읽고 출제경향과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전공평과 대비를 위해서는 지망학과와 관련된 고교 교과서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점검하고 신문·인터넷·방송 등을 활용해 중요한 시사쟁점들도 미리 정리, 자신의 관점을 세우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말하느냐도 중요한 만큼 예상문제에 대한 예시 답안을 만들어 놓고 수차례 읽어가며 어색한 말투나 잘못된 언어습관을 고치는 훈련을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 면접·구술고사 대비 10계명

1. 즐거운 마음으로 면접실에 들어가라.
2. 물라도 당황하지 마라.
3.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쁜 마음으로 그곳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오라.
4. 이야기할 때 본문만 말하지 말고, 머리와 꼬리를 붙여라.
5. 본문을 이야기할 때 내용을 두세 단락으로 쪼개 이야기하라.
6. 적절하고, 재미있는 예를 들어라.
7. 자신의 체험을 적극 활용하라.
8. 추가질문이 나오면 그 의도를 파악하고 최대한 겸손하게 다시 한번 답변하라.
9.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해라.
10. 면접장에 조금 '오버'했다 싶을 정도로 일찍 도착하라.

## 만학도 대상 고교학력 인정 광주 첫 평생교육시설 생겨

### 시교육청, 대신고 인가

광주에 처음으로 만 18세 이상 만학도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해주는 평생교육시설이 들어선다. 광주시교육청은 28일 "일반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2년6학기제 평생교육시설인 광주 대신고등학교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대신고등학교는 내년 3월 서구 매월동에 개교 예정으로 주간 7학급·야간 4학급 등 11학급에 550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만 18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이다.

1년 3학기제 운영되는 교육 과정은 국어·영어·수학·과학·한문·사회·컴

퓨터 중심의 정보화 교육·영어연극부·제2외국어·특별활동 등 다양하다.

졸업 후에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가정 및 농어촌 가정 자녀 등에게는 학비지원과 함께 장학금 혜택도 주어진다.

원서접수는 내년 1월2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대신고등학교 행정실(062-376-8400)로 문의하면 된다.

학교 관계자는 "그동안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고 청소년들을 위한 평생교육시설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 교육 우수사례 보급·일반화 세미나

광주시교육청은 27~28일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일선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모니터링 요원 295명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보급 및 일반화를 위한 세미나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학교급별 분임토론을 통해 초등학교는 기초학습부진아 지도 방안, 중학교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고



등학교는 학생과목선택권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 전남대, 산학협력 우수기업 6곳 선정

전남대(총장 강정재)는 28일 MDS네트웍스·(주)코스코·청도건설주식회사·(주)고려E&C·동양하이테크산업(주)·(주)플라토 등 6개 기업을 2006년 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총장 감사패를 수여했다.



**하이마트 배송차주 모집**

광주하이마트 [HI MART]

- 모집차종: 3.5톤급
- 모집지역: 광주광역시-충주-전남
- 월급: 2,500,000원(4급)
- 차량: 1,000km~1,500km
- 채택조건: 운전면허 소지자(2년 이상)

유선위주/명심면글로벌 타 0233687-0111 후방회 이사/011-376-5004

**유매조수 구제. 빗뎀지 잡는 공기총 출현**

제일총포무역

011-227-0111, 229-7888

**광주일보사**

제42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일/시: 2007. 3. 1(목) 오전 8시

장/소: 광주형석체육경기장 및 영산강 일원(광주-남원교)

출발종류: 4종목(10코스, 5코스, 10km, 5km)

참석기간: 2007. 1. 21(수)까지

신청방법: 전화, 우편, 인터넷

문의처: 011-229-7888

011-229-7888